

여기 당신의 어머니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292. 인사란 단순한 일상의 예의 범절에 지나지 않으며 그 자체로는 그다지 중대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저 인사치레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허다하고 기껏해야 기대하던 어떤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의 기쁨을 표현 하는 정도에 그치고 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대화의 시작이나 무슨 일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자체로 어떤 굳은 이념이나 결정 사항을 표현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시작이요 마침이며 실제적 언어이자 완성이요 약속인 동시에 그 약속의 실현인 인사, 신비로 가득 차고 신비에 둘러싸인 거대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짧고, 간단하고 거창함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아주 단순한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동시에 그 안에 담긴 신비의 심오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인사였습니다.

그 인사는 팔레스티나 지역의 작은 도시, 한 작은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도 작고 또 작았습니다. 그 작은 집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고 그녀 역시 작았습니다. 그녀 스스로 말했듯이 나이로 보나 영향력로나 사회적 신분으로나 보나 아주 작은 영혼이었습니다.

눈부시지 않는 은은한 석양빛 가운데 - 주의를 끄는 강렬한 색조나 특별함이라고는 조금도 없어 더욱 경이로운 - 잔잔한 침묵이 흐르는 무대 안으로 역사상 가장 중대한 인사소리가 마치 달콤하고 부드러운 음악처럼 들려 왔습니다.

질은 색조를 지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동 깊고 심오한 인사였습니다.

니다. 하늘에서 내려 온 한 천사가 그의 입술에 담아온 인사였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그가 가져온 메시지도 모두 지극히 높은 분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진리의 말씀, 실제적인 진리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아베 (하렐하나이다)... 당신께 문안 드립니다.

아베... 복되신 여인이여.

아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나는 당신께 평화의 노래를 전달하기 위해 빛과 생명과 평화의 나라에서 왔습니다..

아베... 이는 사랑과 기쁨의 인사입니다. 아베...

이는 일찍이 지상에서 듣지 못하던 인사입니다. 유대의 소녀여! 기뻐하십시오. 임금님께서 처음으로 당신께 보내시는 인사입니다.

아베...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여...

은총... 이는 지상 것이 아닌 하늘의 은총, 즉 신비스런 영원의 궁전 안에 간직된 은총입니다.

차고 넘치게 주기를 좋아하시는 그분께서 넘치는 은총으로 한껏 채워주신 이여, 그분은 당신 안에서 그분의 뜻이 한치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남아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천사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은총으로 가득하시기에 즉 생명으로 흘러 넘치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셨기에... 하느님의 마음에 드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눈 여겨 보셨습니다. 이는 곧 당신 안에 반영된 하느님 자신을 보신 것입니다.

먼저 당신을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런 다음 당신 안에 심으신 그 생명에 매혹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그분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보시고, 자신에게 매료 되었습니다. 당신 안에서 자신을 보시고, 당신 안에서 기뻐하시고, 당신 안에서 흐뭇해하셨습니다. 당신 안에서 즐거워하시고, 당신을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만이 아시고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당신에게 부르셨습니다.

은총으로... 즉 하느님으로 가득하다고... 노래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어머니, 저도 그분과 함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을 노래하게 하소서. 또 한가지 제가 바라는 것은 어머니, 당신께 불러 드리는 제 노래 소리가 곱고도 깨끗한 가락, 가난하고 미약한 가락이 되게 해 주소서. 그리고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무능한 가락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을 반영하는 깨끗한 메아리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의 메아리가 되고 싶습니다. 예, 어머니, 바로 당신의 메아리, 순종의 메아리, 충실의 메아리가 되어 사람들에게 당신 바다의 깨끗한 물방울을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 삶의 여정이 천사의 인사의 메아리가 되게 하소서. 제 삶의 악기가 유일한 선율을 간직하고 맑고 고운 가락이 되게 하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나이다.

293. 사막에는 “마리아”하고 울리는 종탑이 있습니다. 그 종이 울릴 때마다 마리아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사막에는 나그네들을 안내하기 위한 망루가 있습니다. 그 망루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사막에는 결코 마르는 일 없이 끝없이 솟아오르는 작은 샘이 있습니다.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마리아’라고 노래합니다.

294. 우리 어머니께서는 모든 것에서 비워져 계셨기에 하느님으로 차고 넘치셨습니다. 최고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녀의 마음에 하느님은 강하게 끌렸습니다. 하느님이 그의 어머니에게 반하신 것은 그녀가 가득

차 있어서가 아니라 비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채우는 것은 하느님의 일이었습니다.

295. 마리아는 하느님의 빛을 밝히는 등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 빛을 간직하셨고 강생과 골고타에서 그 빛은 차고 넘쳤습니다.

296. 마리아를 경청하는 것은 결코 오염되지 않은 맑은 폭포수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머나먼 천상세계의 티없이 깨끗하고 투명한 소식을 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안에 천사들의 교향곡과 삼위일체의 심오한 신비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297. 지상의 어떤 연주회도, 우주의 어떤 음악도 성모님의 감미롭고 꿩 뚫는 듯한 목소리와 비교될 수 없습니다.

298. 우리 성모님은 세상을 위해 보내신 하느님의 미소였습니다.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이 미소를 연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미소 짓는다면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마리아를 보게 될 것입니다.

299. 동정녀를 사랑하고 마리아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것은 강건함과 남성다움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으로 인해 영혼은 송고하고 위대한 것 앞에 재빠르고 꾸준하고 견고해집니다..

300. 마리아는 저의 요새, 저의 힘, 제 희망이요, 성덕이며, 생명입니다... 제 입술로 그 복된 이름을 부를 때 원수에 대항하는 가장 훌륭한 원자 폭탄이 될 것입니다.

301. 성모님께 다가가 그분의 순수한 사랑을 흠뻑 마시고 취하며 끊임없이 계속 목말라 하는 것...! 하느님, 나의 하느님, 영원토록 흠뻑 마시고 영원토록 목말라 하는 것!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302. 성모님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빌려주신 것이고 스스로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감사 드리셨습니다. 자신의 허무를 보셨고 그 허무를 하느님께 바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허무의 심연 위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무한한 심연을 던지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허무를 살았고, 하느님께서서는 그녀 안에서 당신의 존재를 사셨습니다.

303. 성모님의 침묵이 그대의 침묵을 호소합니다. 그 침묵은 정결하고, 수도원적인 침묵이었습니다. 침묵! 그것은 행복이라는 말의 동의어이자 "예"라는 말의 동의어입니다.

304. 마리아께서 우리 희망이고 든든한 피난처이신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예"의 성모님을 유심히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향구한 "예"를 그대에게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305. 어머니! 저는 떨고 싶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에서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계획을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하느님의 품에 꼭 안기고 싶습니다. 어머니, 저를 하느님 안에 고정시켜 주십시오.

306. 더 많이 겸손하고, 부드럽고 온유해지기 위해 더 많이 성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모님, 오직 성모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307. 만일 어쩌다 그대가 넘어지게 된다면... 우리 허무의 신비를 일깨워 주는 복된 넘어짐이여...! 즉시 그대의 시선을 들어 올려 성모님께 고정시키고 간절한 영혼의 호소로 어머니께서 그대를 위해 마련하신 것을 얻어내십시오.

308. 어머니! 강생에서 골고타에 이르는 제 묵주기도의 신비들을 어머니의 품에서 들었으면 합니다. 또한 그 신비들을 살기 원합니다.

309. 어머니의 마음의 봉쇄 안으로 영원토록 데려가 달라고 말씀 드리십시오. 거기서 세상을 향하는 문들은 닫혀지고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해주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향하는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인어의 노래에 속지 말고, 그대 마음의 노래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신비로운 사랑의 노래를 들으십시오.

310. 성모님은 모든 것을 마음 속에 간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언제나 고요와 평화와 깊은 겸손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성모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신비를 간직하는 법을 그대에게 가르쳐 주시고, 언제나 겸손의 신비를 살아가며, 한결 같은 애덕을 실천하고, 하나로 모으고 일치시키는 평화의 분위기를 보존하는 비결을 그대에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311. 하느님의 계획을 자녀다운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자녀'라는 신비스런 교리가 비로소 생활화될 것입니다. 오직 하느님의 뜻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분을 어머니라 부를 수 있고 또 그분의 딸이 될 수 있었습니다.

312. 제 영혼 안에 당신의 "예"가 울려 퍼질 때, 저는 충만한 기쁨을 느낍니다. 당신의 "예"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이 어머니를 가지게 되었다는 그런 기쁨일 것입니다.

313. 성모님은 우리 존재를 엮어가는 금실이십니다. 이 금실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로 엮어져 갑니다. 성모님께서 "모두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신 아드님의 신비로운 꿈이 실현될 때까지 우리 서로서로를 엮어 가시며 서서히 일치를 이루어 내십니다. 성모님의 뜨개질에 방해되지 않도록 실이 끊기지 않게 도와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성모님의 손에 의해 하나로 엮어지는 것입니다.

실들이 끊겨서는 안됩니다. 성모님의 작업에 우리 모두 협력해야 합니다.

314. 성모님은 고요한 영혼과 사랑에 빠진 자유로운 마음으로 위대한 사

랑의 신비를 기다리셨습니다. 그 기다림은 만남으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굳건한 희망과 확고한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대 영혼 깊숙한 곳에서 그대가 사랑하고, 찾고 있는 하느님을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315. 그녀는 너무도 작았습니다. 정말 작았습니다. 지상에는 수 많은 계곡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바다 깊은 물속에는 이보다 더한 신비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짚대는 우리들의 산만큼이나 깊은 계곡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는 결코 다다를 수 없을 만큼 깊이 뿌리 박은 거꾸로 솟은 산들입니다. 마리아는 이 거꾸로 솟은 산들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계곡들은 얼마나 거대한지 거의 항상 하느님의 무한한 심연으로 사라집니다.

316. 성모님의 바위에 의존하는 것은 안전하게 사막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의 성모님 상 앞에 매일매일 다가가십시오. 성모님께서 그대의 입맞춤을 받으시고 그대의 간구와 갈망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317. 매 순간 충실하다는 것은 형제들이 숨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산소 호흡기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기에, 그들을 위해 성모님께 지극히 충실 하십시오.

318. 성모님의 별은 영혼에게 안전한 길을 가리켜 줍니다. 그분의 빛 속으로 우리의 빛이 사라집니다. 그대의 빛을 마리아의 빛에 합하십시오. 이 좋으신 어머니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십시오.

319. 그대의 빛이 성모님 빛의 반영이라면 좋겠습니다. 성모님께서 당신 태중에 말씀을 육화시키신 것을 아십니까? 그대도 그대의 삶 속에서, 그대의 미소 안에서, 그대의 사랑 안에서 말씀을 육화시키십시오. 그대가 말씀의 육화가 된다면 그대의 말은 하느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320. 늘 아드님과 어머니 사이에서 살아가십시오. 현세에서도 영원에서도 그대 삶의 중심을 잡아주고 이끌어 주실 이 두 분의 사랑에 충실하십시오.

321. 어머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아, 내가 찾는 것은 하느님과 하나되기 위해 그 분의 무한 속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하신 그분에게서 모든 이를 위한 일치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그대를 찾습니다. 그분 안에서 자신을 버리고 일치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라고 그대를 찾습니다."

322. 우리 삶이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마리아화 되어있느냐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되면 될수록 범세계적인 사람이 되고 더 많은 형제들을 얻게 됩니다.

323. 마리아, 당신의 "예"는 새로운 노랫가락입니다. 땅도 함께 노래 부르며 기뻐합니다. 이제 어둠이 빛을 갖게 되었습니다.

324.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은총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그 다음으로 아름다운 은총은 마리아입니다.

325. 성모님이 그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만일 그대도 성모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면... 그대의 영성생활은 마리아의 신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리아는 그대를 차지하시길 원합니다.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를 다루시어, 예수님으로 만들어 주시도록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오직 성모님 품에서만 예수님이 될 수 있습니다.

326. 성삼위께서 여왕이요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영혼 안에 새겨주신 신비는 오묘하기만 합니다. 이는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성화를 위해 그녀에게 베풀어 주신 깊은 사랑의 신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 가장 근접한 신비이자 하느님의 마음에서 솟아나는 형언할 수 없는 선함의 신비입니다.

327. 그대 영혼의 여왕을 어느 정도로 사랑합니까? 그분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항상 그분의 뜻에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안심하고 길을 가십시오.

328. 아무리 성난 파도라도 성모님 마음의 거대한 해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면 정말 안정이 됩니다. 모든 것이 그 안에 잠기고 그대의 작은 미립자도 끝없이 광활한 그 호수 안에 잠겨 버립니다.

성모님이 그대의 물이요, 바다요, 생명입니다. 성모님이 그대를 보호하시고 예수님께로 데려가 주십니다.

329. 그대의 사랑, 타인을 위한 그대의 헌신, 조건 없는 그대의 봉헌, 모든 것이 어머니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마십시오. 성모님은 그대의 넘어짐 까지도 받아주시고 그대를 등에 업고 귓가에 속삭이십니다. "딸아 너에게 특별히 할 말이 있단다.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단다!"

330.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결눈질도 하지 말고, 오직 성모님의 눈만 바라 보십시오. 그대를 바라보시는 그 분 눈동자 속에 간직된 불을 보게 된다면...! 그 눈빛만 바라보며 사랑에 빠져 그대를 기다리고 있는 정상을 향해 미칠 듯이 나아가십시오.

331. 마리아를 바라볼 때 일치가 이루어집니다. 이 위대한 신비를 이루기 위해서는 생명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생명으로 값을 치러 일치를 이루셨고 그 신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모님 또한 같은 대가를 치르면서 이에 협조하셨습니다. 일치를 위해 얼마나 큰 대가들이 치러져야 했는지요!

332. 어머니...! 제 마음을 본질적이고 확고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에 고정시켜 주십시오. 어머니, 하느님의 무한한 바다에서 그 무엇도 저를 끌어 내지 못하게 하소서. 그분 안에 저를 영원히 고정시켜 주시고, 거기서 빠져 나오지 못하게 해주소서.

333. 어머니, 제 영혼의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이 무한한 갈증이 영혼들을 위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소서...

334. 마리아는 우리 존재의 에너지를 모두 한데 모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하시고 흠어지기 쉬운 우리 존재를 모아 주십니다. 두려워 말고 아무 걱정 마십시오.

 좋으신 어머니께서 그대를 일편단심의 영혼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335. 그대의 삶이 살아있는 성모님의 노래(Magnificat)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노래하고, 열렬히 찾으십시오. 어머니의 마음을 더 많이 찾고, 그대 자신에 대해서는 덜 생각하십시오...

 그대는 아무 것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성모님께서 다 신경을 써주시고, 그대를 인도하여 어머니 마음의 정상에까지 데려다 줄 것입니다.

336. 거기, 어머니의 마음에 기대어서 영혼은 살아있는 관상의 신비를 마십니다. 거기서 그대의 마음은 자모이신 교회의 신비체, 사제들과 영혼들에게 새롭고 신선한 힘을 불어 넣어 주기 위해 신선한 혈액을 공급받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안에서 영혼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느님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어머니는 그대에게 하느님과 닮아지는 비결을 가르쳐줄 것입니다.

337. 제 마음은 언제나 교회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봅니다. 저는 모든

이를 위한 모든 것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아드님의 범세계적인 문제들을 품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구원하고 싶습니다.

338. 어머니, 당신의 “예”로 살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예”가 저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어머니의 입술로 그것을 발음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제가 “원합니다”하고 말하면 좋으시겠어요?

339. 성모님의 모범은 참으로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비들이 그분 안에 담겨 있는지! 이 신성한 보석의 놀라움은 온전히 하느님께 주의를 기울인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도 신비롭게 그분께 고정되어 있었기에 그녀를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얼핏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일을 청하였을 때도 그녀는 놀랍게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다.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아들아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마디의 말로 시작하시고 네 마디의 말로 끝맺으셨습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녀가 한 말은 이루어졌지만 그녀 자신은 거기 있지 않았습다.

340. 어머니의 마음 안에 굳게 자리잡으십시오. 어머니께서 안으로는 조용히 침묵하고 밖으로는 변명하지 않는 비결을 그대에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의 자매요, 벗이요, 모든 이를 위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341. 이 좋으신 어머니께 다가가 그대의 눈길을 어머니의 눈길에 맞추십시오.

시오. 이 시선의 교환으로 그대가 정화되고 성숙해지고 성화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는 사랑을 만날 것입니다. 어머니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 그분의 불길로 그대를 불사르십시오.

342. 성모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주실 것입니다. 그대가 흥해 바다를 건너 약속의 땅에 다다르는데 필요한 힘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화의 흥해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많은 겸손과 영혼의 침묵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그대 혼자서는 해낼 수 없으므로 그분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서 얻어낼 수 있다는 자녀다운 확신감을 갖고 겸손하게 말하십시오. "오늘 하루 필요한 한 톨만 동양해주십시오."

사막을 가로질러 건너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선함을, 부활을 증거하는 기쁨을 한 톨만 동양해 주십시오. 제 두 눈이 하늘 빛으로 가득 차도록 당신의 눈빛을 동양해 주십시오.

343. 거룩하신 마리아, 제 영혼을 위해 빌어 주소서. 제가 만일 백함이라면 날카로운 못처럼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장미라면 가시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또한 영경귀가 되지 않게 해 주소서.

344. 그대의 시선이 하늘에 고정되어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대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하늘로 가득 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오직 한가지입니다. 그것은 성모님께 그대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눈으로 들어가 그를 통해 그녀의 마음에까지 들어가십시오. 바로 거기에 하늘이 있습니다.

그 하늘에서 순결한 사랑으로 씻겨지고 어머니의 성심에 아낌없이 내어주며 그 안으로 깊이 점점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

십시오. "어머니 오늘 하루 필요한 한 푼만 동냥해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을 사는 일만 남았습니다.

345.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십시오. 그대는 사랑의 딸입니다. 어머니께 다가가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대를 위해 계시는 그대의 어머니이십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그녀를 그대의 어머니로 주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하느님께로 향하는 그대의 순례 길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느님의 순례자가 되십시오.

어머니께서 우리를 당신 품에 안고 가 주신다면 이 세상을 순조로이 지날 수 있을 것입니다.

346. 한 주간을 마리아의 성심 안에서 끝맺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이렇게 한 주간, 한 주간을 끝맺음 할 때 달마다, 해마다 어머니의 마음의 신비를 들으며 사는 것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347. 어머니, 모든 꽃들이 당신에 대해 말합니다. 저도 제 삶으로 당신 사랑에 대해 말하렵니다.

348. 전혀 오염되지 않은 이 거대한 물속으로 들어가 다시는 거기서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 어머니의 마음 속에 순수한 신학의 신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마음 속에 하느님의 모든 비밀을 간직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비밀을 그대에게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는 신학자가 될 것입니다. 마리아께서 그대를 가르치고 성화시키도록 말

겨 드리십시오.

349. 어머니의 시선은 호소하고, 애원하고, 간청합니다. 무엇보다 얻어내십시오. 무엇을 얻어내십니까? 자녀들을 위해 온유함, 일치, 효성, 보편적인 형제애를 얻어내십시오.

그 하늘스런 눈에 자신의 눈길을 고정시키는 영혼은 어머니께서 주시는 것과 똑 같은 것을 세상에 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350. 어머니, 제 탓으로 세상이 너무 추운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저를 따스하게 해 주실 것이니, 둘이 함께 자녀들을 위해 모닥불을 피웁시다.

351. 마리아, 나의 어머니, 당신의 모성애를 제게 주십시오. 저는 당신께 자녀의 효성을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제 안에서 모든 것을 해주소서. 저는 당신의 돌보심에 잠자코 맡겨 드리겠습니다. 당신께 제 혀와 제 마음, 제 능력과 저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천국에서 성인 성녀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 마니피캇의 노래를 제 안에서도 불러주십시오.

352. 어머니, 누가 저를 제 허무의 심연에까지 데려가 하느님의 심연과 만나게 해 줄 수 있을까요? 어머니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어 그 심연 안에서 절대적이고 영원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해 주소서.

353. 우리 어머니이신 동정녀께서 이 새로운 “연인들의 옷”을 입고 다니

는 법을 그대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비밀은 겸손하고 작아지는데 있습니다.

354. 나의 어머니는 전능하시기에, 당신의 전능하신 간구 안에 당신 딸을 감싸주십시오. 어머니와 아드님, 이 두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신다면 누가 감히 저와 맞설 수 있겠습니까?

355. 어머니, 당신은 저의 어머니시요, 저는 영원토록 당신의 딸입니다. 저의 과격함을 억제해 주시고, 제 교만을 없애시고, 제 분노를 온유로 바꾸시며, 저의 걱정은 거룩한 열정으로, 제 반항심은 끊임없는 자기 낮춤의 기회가 되게 하소서.

천사들을 떨게 하는 그 거룩한 노래를 제 안에서 부르고, 당신의 하늘을 제게 주소서, 제 삶이 그 하늘의 반영이 되고 빛과 사랑과 생명의 속삭임이 되게 하소서.

356. 지옥이 들고 일어나 그대를 넘어뜨리려 할 때 그대 입술을 그 거룩한 이름으로 적시고, 그대 마음은 그 신선한 새벽 미풍으로 축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대의 혀는 마리아라는 말 밖에 다른 말을 할 줄 모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357. 예, 성모님께 수없이 입맞춤 하십시오. 그러나 입술이 아니라 영혼으로 입맞추십시오. 나의 의지를 어머니의 의지에 맞추고 어머니의 삶을 나의 삶으로 만들어 그분께 입맞춤 하십시오.

358. 어머니, 저는 검정색과 흰색이 동시에 되고 싶습니다.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고 싶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고 싶습니다.

359. 동정 성모께 매달리면 모든 일이 얼마나 쉽게 풀리는지요! 그녀는 우리 시선과 몸짓, 우리 하는 일... 우리 삶 전체를 부드럽게 해 주십니다. 우리 걱정의 화산을 온유하고 잔잔한 평화의 호수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360. 동정녀께 대한 사랑은 우리 존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동정녀께 대한 사랑! 이것이 전부입니다.

361. 어머니! 불 같은 당신 시선으로 제 삶의 찌꺼기를 태우소서! 저를 정화시키시고, 당신 안에 고정시키시어 지상의 그 어떤 것도 저를 흔들지 못하게 하소서. 어머니, 제 일생이 하느님 안에 뿌리내리고 하느님 안에 잠기게 하소서.

362. 고통의 마리아! 그녀의 고통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고 그 사랑은 당신 아들의 사랑을 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363. 이 5월에 저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동정녀께서 그대를 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머니 마음대로 그대를 차지하도록 맡겨 드리고, 그대

의 영혼 안에 들어 오시게 맡겨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녀에게 속마음을 나누십시오.

어머니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충고 하나를 해도 될까요? 자신과 대화하지 말고 자신에게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녀에게 귀 기울이십시오. 신비로운 사랑의 선물을 그대 영혼 안에 심고 계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364. 알고 있습니까? 정말 단순합니다. 보세요. 그대는 아무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대 안에서 일치의 신비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365. 마리아께 달려가 그대의 삶과 가진 것 전부를 동정 성모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그러나 한꺼번에 드리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그대 존재의 마지막 구석까지 내어 드십시오. 그대의 숨결, 그대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은밀한 느낌, 희생, 헌신, 갈망들 더 나아가 그대 안에 있는 불평, 불만, 반항심까지 하나도 남김 없이 내어 드십시오.

성모님께서 그대의 완전한 주인이 되시도록 좋고 나쁜 점을 가리지 말고 몽땅 내어 드리십시오. 조금도 아끼지 않고 송두리째 내어 드리십시오. 그대를 내어 드리면 그녀를 얻게 되고 그녀를 얻으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366. 어머니, 제가 사랑의 학과목을 다 배우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를 시험하셔서 통과시키시겠습니까? 그러면 빨리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을 뵙고 싶습니다.

367. 어머니,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무한하고 영원한 심연을 보여주십시오. 또한 제 허무의 심연도 보여 주십시오. 이 두 심연을 잘 조화시키시어 마침내 제 허무는 사라지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없어지고 말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절대적인 것에 고정되게 하소서.

하느님의 심연 안에 저를 고정시켜 주십시오. 무한한 본질, 늘 존재하시는 분을 맛보게 해주소서.

368. 어머니를 만난 사람은 생명을 만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아드님께서 어머니 안에 항상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을 만난 사람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본능적이고 감각적이며 가련한 생명이 아니라 참 생명: 충만하고 영원한 생명, 황혼을 모르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 줄어들지 않고 쪼개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369.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종류의 사건과 문제들 뒤에는 성모님께 대한 사랑이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교회 안에서 있었던 유익하고 건설적인 모든 시도들은 성모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성모님의 손에 우리 삶의 신비들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370. 수도원에서는 마리아의 흔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수녀들의 미소입니다.

371. 성모성심께서 어머니의 손길로 그대의 마음을 언제나 감미롭고 평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영혼들을 예수님으로 만들고 착하고 온유하며 평화롭고 겸손한 마음으로 만드는 방법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성모님 마음의 한 자리를 차지하십시오.

372. 우리 수도원의 한 가운데 자리하신 “예”의 동정녀께서 그대 영혼 안에 메아리 치게 하려면 그대 미소 안에, 그대의 인격 안에, 생활 안에 성모님이 깊이 자리 잡으셔야 합니다.

373. 예수님, 당신의 밑알은 어디서 싹이 텄나요? 내 어머니의 밑발에서 자라났단다. 그러면 당신 어머니는 누가 지어내셨는지요? 우리 삼위 일체가 지어냈단다.

저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 줄 그 신비스러운 “작업장”으로 저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그러나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온갖 종류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단다. 예, 받아들입니다. 조건 없이 저를 내어 드립니다.

374. 우리 “예”의 성모님은 사랑의 동정녀이십니다. 그녀는 당신의 아드님을 품에 안으시고 진실한 “예”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아드님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마리아의 품에서 “예”라고 응답하는 영혼은 그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375. 어머니, 왜 사물들이 저를 흔들어 놓는지요?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에 왜 저는 이렇게도 민감한지요? 어머니, 왜 단번에 저를 영원하신 하느님의 신비 속에 영원토록 고정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당신께 바랍니다. 저는 당신의 딸입니다.

376. 감미롭고, 부드럽게 자신의 눈길을 언제나 하느님의 눈길에 못 박으신 분, 이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그대도 감미롭고, 부드럽게 눈을 들어 하느님의 시선에 자신의 시선을 못 박은 채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377. 어머니, 당신의 그리스도가 저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둘이서 그분을 나누어 가질까요? 아니면 둘이 함께 그분을 통째로 가지는 게 더 좋겠지요?

378. 어머니, 제 영혼을 비추어 주시어 영원한 나라의 무궁함과 현세 사물의 헛됨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 주소서.

어머니, 제 삶을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에 고정시켜 주시고 때때로 저를 끌어 당기는 그 많은 허영심과 웅졸함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소서.

어머니, 제가 무한 앞에서 이치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379. 허무 자체인 가난한 그대에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꼭 필요한 일 한가지는 티끌 같은 그대가 그분께 완전히 빈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당신의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비우는 작업의 전문가는 성모님이십니다. 어머니께서 모든 것을 해 주

실 것입니다. 그대의 영혼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한가지, 이 모성애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는 것, 즉 어머니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380. 어머니 안에 있으면 관상에 도달하리라는 것은 이미 보장 받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 얼마나 확실한 보장입니까! 그녀가 우리를 "위대한 관상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 안에 이 신비들이 육화 될 때 그대는 범세계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381. 포도주는 어머니께서 마련해 주십니다. 어머니는 그대의 술광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382. 온유, 기쁨, 자기 잊음... 어머니께 합당한 세 가지 귀한 선물입니다. 그녀는 이 값진 보석을 당신 사랑의 보물 상자에 넣어 간직하십니다. 성모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 자신을 잊는 것 보다 더 훌륭한 방법이 없습니다.

383. 그분을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기 위해 예수님이 되십시오.

384. 성모님의 생애는 빛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그녀를 보는 것은 그분을 발견하는 것이며 그녀를 만지는 것은 영혼 안에 스며드는 성삼위의 전류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녀의 사명은 영혼들과 하느님의 신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녀와 하나가 되어 그 사명을 연장하게 되면 우리도

빛과 다리, 생명과 일치, 사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85. 그대가 아메리카, 아프리카를 밝히는 새벽 여명, 희망과 열정으로 찬란한 한줄기 빛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를 위해 사랑의 대가, 신성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대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을 밝혀주는 새벽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성모 마리아의 새벽빛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386. 어머니, 하느님의 침묵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어머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느님의 침묵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말해 주세요 어머니, 하느님을 닮기 위해 어떻게 하면 고요해질 수 있을까요?

어머니, 하느님의 고요가 저를 감동시킵니다. 저를 이 신비의 영역의 밑바닥까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387. 마리아여, 저를 보아주십시오. 그리고 불꽃 같은 당신의 눈길을 제게 주십시오. 당신의 눈길로 세상을 불태우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의 불꽃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먼저 저를 태워주십시오.

388. 성모님은 조연자요 친구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요, 그대의 어머니 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깊이 신뢰하십시오!

389. 만일 동정녀께 그대의 영혼을 맡겨드린다면 분명히 그대 안에서 무언가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 성급한 기질이 부드러워지고 과격함은

온유해지며 반항심들에 제동이 걸릴 것입니다. 동정녀께서 그대 안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신다면 제 마음이 참으로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대의 삶이 완성되지 못할 테니까요.

390. 밀알이 죽는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 속에 떨어진다면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그 딱딱한 땅을 부드럽게 해 주시고 그 어두움을 비추시며,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밀알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391. 하느님의 모든 계획은 사랑으로 가득 찬 마리아의 마음을 통해서 옵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마리아의 향기와 함께 마리아의 숨결, 마리아의 자취와 함께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392. 성모님은 그대의 밀알이 떨어져 묻히는 고랑입니다. 성모님께서는 그 밀알을 받아 정성 들여 가꾸어 그리스도의 신비체로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모든 이를 위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너무도 은밀하고 맞갖은 겸손이 요구되는 과정이기에 스스로의 능력으로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오직 은밀하고 진실한 기도와 깊은 겸손의 길로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 청해야 합니다. 동정녀께 그대의 손을 벌려 간절히 청하십시오.

393. 그대는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녀를 만나 그 숨결소리를 들었으니 그대의 삶에 이제 더 이상 무엇이 필

요하겠습니까?

394. 교회 안에서 마리아는 핵심이 되는 신비이자 사랑의 신비입니다. 그분의 태중에서 예수님이 형성되었고 지금도 계속하여 예수님의 신비체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대 자신도 그 어머니의 성심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395. 작은 영혼들의 주인이시며 여왕이신 어머니, 당신 마음의 고향으로 제 삶을 인도해 주소서. 거기 타오르는 당신 눈길의 빛과 열기 속에, 신비로운 당신의 손길 아래, 사랑에 찬 당신의 고동소리를 들으며 제 삶의 씨앗이 싹트게 하소서.

저의 씨앗을 당신 고향에 심으시어 모든 사람의 시선에서 사라지게 하소서.

396. 동정녀의 마음 속에는 묵주기도의 신비들이 힘차게 박동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인생의 광야에서 새로운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영원의 신비, 하느님의 심오한 그 무엇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의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이는 새로운 음악, 하루, 하루 새롭게 시작하는 사랑입니다. 그 음률은 결코 반복되지 않으니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397. 마리아 안에서 예수님의 신비를 만납니다. 거기서 빠져 나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안에서 섬세함, 부드러움, 침묵, 무엇보다 일치的神비

가 피어나게 하는 애덕을 배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398. 어머니! 고아들도, 버림 받은 이도 없게 하소서. 어머니, 저와 함께 범세계적인 모성애와 형제애를 온 세상에 듬뿍 나누어 줍시다.

399. 우리 여왕의 눈에 반짝이는 저 신비스러운 눈물은 사랑과 애정 그리고 깊은 고통의 상징입니다. 사랑에 빠진 영혼 안에는 이 모든 감정들이 서로 교차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느낌들이 한데 어우러져 깊이 있고 품위 있는 인격이 형성됩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온갖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눈물지어야 할 운명이 닥쳐올 때 그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신비스런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400. "어머니!"하고 수없이 부르십시오. 그대도 모르는 사이에 그대의 삶이 예수님이 되어가고 있음을 감지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충만하게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어머니로 모실 때 그대 영혼에게 영원한 지평선이 열릴 것입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그분의 딸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401. "세세 대대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마리아는 신비를 예언했고, 우리는 그 신비를 노래하며 그녀의 예언을 완성해 갑니다. 우리는 노래하는 세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녀처럼 사랑하는 세대, 일치하는 세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402. 어머니, 저를 도와 주십시오. 모든 것을 당신께 바랍니다. 저는 너무나 작고 가난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주 쉽게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당신은 어머니이시니, 영원토록 저를 하느님 안에 고정시켜 주실 수 있으십니다.

403. 마음은 타오르는 사랑과 애덕의 심장부입니다. 거기, 신비로운 마리아의 성심 안에서 그 사랑의 신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로 들어가십시오.

404. 그대는 마리아의 애덕을 잘 본받고 있습니까? 그 애덕의 화산에 들어있는 사랑의 온도는 얼마나 될까요?

아! 그 안의 불길은 너무도 세차고 뜨거워 그 온도를 잴 수 있는 온도계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405. 마리아, 당신을 "어머니"하고 부를 때 제 안에 있는 사랑의 능력이 고스란히 소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06. 성모님은 무한하고 우주적인 시선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십니다. 어머니의 권리로 모든 것을 바라보십니다. 살아있는 모든 이들의 것인 **아드님**을 품에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아드님**의 것이고 또 모든 것이 마리아의 것입니다.

온전한 딸이 되십시오. 모든 것이 그대의 것이 될 것이며, 그대는 **아드님**과 함께 사랑하고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407. 마리아, 당신은 하느님께서 피조물에게 보내신 하느님의 미소입니다. 저는 피조물이 하느님께 드리는 미소가 되게 하소서.

408. 우리 성모님,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더욱 충실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조건 없이 완전히 내어 주기를 청하십니다. 이는 편한 함을 찾지 않고, 뺨소니치는 "나"와 죽음을 각오하고 싸움을 벌이는 것이며, 자신에게 쉴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한 삶을 살아 가는 것입니다. 우상에 빠지는 것은 잠깐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하느님, 오직 하느님.

409. 하느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평범한 것들을 청하십니다. 여기에 진정한 사랑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 평범함 속에 거의 항상 거룩한 순교가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사셨던 것처럼 아낌없이 내어주는 순교인 것입니다.

고통 중에 계신 마리아보다 더 단순하고 또 감동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410. 검은 성모님, 사랑의 태양에 그을려진 당신의 모습이 제 눈에는 얼마나 희고 눈부시게 아름다운지요!

411. 삼위일체 안에서는 마리아에 대해 자주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성심 안에는 오직 삼위일체의 메아리만이 울려 퍼집니다.

412. 우리의 여왕께서는 보이지 않게 다스리십니다. 그녀의 다스림은 끝이 없으며 **아드님의** 왕권으로 다스리십니다. 절대적인 왕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임금님의 밀실로 인도되도록 자신을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대도 임금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그대를 데려가시도록 맡겨드리십시오.

413. 성모님께 말씀 드려 그분의 성심 안에 우리 두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 드려 보십시오. 거기서 뿌리깊은 우정을 다지고 모든 이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성모님의 제자가 되어 형제들의 절친한 벗이 되어 주십시오.

414. 만일 그대가 수정처럼 맑고, 눈 같이 희고 순수한 피앗(Fiat)을 유지한다면 마리아는 분명 검은 대륙에서도 다스리실 것입니다.

415. 8월 15일은 마리아의 다스림이 절정에 다다른 날입니다. 만일 하늘에 달력이 있다면 이 날에 여왕으로 선포되셨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대 영혼의 하늘의 여왕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그 하늘이 온전히 비어있고 깊은 침묵과 고독 안에 잠겨 있기를 바라드립니다.

어머니는 지상에서 당신의 발을 디딜 땅을 찾고 계십니다. 파티마의 떡갈나무를 찾으셨고 루르드의 바위를 찾으셨으며 이제 그대의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직 어머니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당신을 알리시기 위해 그대 마음 안에 신앙으로 새롭게 발현하시길 원하십니다.

416. 이렇듯 좋으시고 위대하신 어머니의 품 안에서 엮어지는 나날들은 얼마나 좋은지요! 이 어머니는 하느님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이보다 더 위대하게 그녀를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더라면 바로 하느님 자신이 되어 버렸을 테니까요. 우리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길을 갑니다. 오, 하느님! 당신 **아드님**을 품고 가신 그 같은 팔에 안겨 저도 함께 간다니,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아드님과 어머니가 우리 여정에 함께 하십니다. 셋이 함께 하느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머니, 제 성소가 완성되도록 저를 예수님으로 만들어 주소서.

417. 성모님, 제 어두움을 밝혀 주소서! 그리고 제 허무를 깊이 깨우치고, 하느님의 신비 안에 잠기게 하는 그 심오한 지식을 제게 주소서.

418. 어머니께서 주시는 사랑의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일치의 신비입니다. 이 일치는 수도원의 삶을 생생한 복음의 페이지로 만듭니다. 보다 아름답고, 활기차고, 예수님으로 가득 찬 페이지입니다.

어머니, 복음 안에 담겨 있는 비밀들을 제게 주십시오.

419. 성모님의 존재 전체가 온통 절규요, 호소입니다. 이를 알고 있습니까? 성모님은 구원을 호소하시는 중재자이십니다. 구원하시며 하나로 만드십니다. 자녀들을 사랑 안에 하나로 모으십니다. 구원을 가져오는 일치의 정신을 그녀에게서 배우고 그대도 일치의 끈이 되십시오..

420. 마리아처럼 신비를 깊이 간직하고 사셨던 분은 없었습니다. 그녀처럼

럼 사랑했던 사람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너무도 단순하고 평범하였습니다! 그녀의 발자취는 불꽃이었고 그녀의 삶은 침묵이었습니다.

421. 성모 성심께서 당신의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왕권은 사랑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여왕이며 동시에 노예였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여왕이었고 하느님의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이 노예의 신비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이는 사랑의 신비입니다.

422. 마리아의 성심 안에 보다 은밀한 교회의 비밀들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성심 안에 들어가 물어 보십시오. 어머니, 저의 어머니이신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안에 간직된 비밀들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게 맡겨 주신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제 삶을 깨뜨려 주십시오. 그러나 어머니, 어떻게 하면 저 자신을 깨뜨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침묵 속에서 그녀에게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유심히 그녀를 바라보십시오. 그 눈동자 안에 새겨진 하느님의 비밀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423. 안으로 밖으로 침묵하면 할수록 성모 성심의 비밀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424. 성모님, 당신에게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저를 꼭 잡아주십시오. 당신 손으로 제 머리칼을 낚아채는 한이 있을지라도 저를 꼭 붙잡고 놓지 말

아 주십시오.

425. 동정 어머니께서는 스스로 사랑의 종이라 부르셨고 또 실제로도 그러하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섬세하고 최고의 단계에까지 이르셨습니다. 그 값은 골고타의 정상에서 치러집니다. 용맹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426. 어머니, 제 영혼의 뼈 속 깊이까지 당신의 사랑과 기쁨으로 사로잡힌 이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처럼 철저하고 싶습니다. 참행복에서 말하는 온유한 이가 되고 싶고, 당신과 예수님 두 분처럼 열렬히 사랑하고 싶습니다.

427. 주님의 여종이시여, 당신의 비밀을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주님의 눈길을 차지하셨습니까?

나는 나를 작게 만들었고 내가 작아지니까 모든 자리가 비어졌다. 그러자 그분께서 들어오셨고 그분과 함께 형제들도 같이 들어왔다. 내 안에 국제적인 공간, 일치의 공동 시장이 있다.

428. 그녀에게 가까이 가십시오. 그대의 절친한 벗, 좋으신 어머니, 교만이라고는 한치도 발을 들여놓을 틈을 주지 않으신 지극히 자애로우신 동정 어머니께 가까이 가십시오. 성모님은 당신 작은 종의 싸움을 너무도 잘 이해하시고 그 영혼 안에 일어나는 가장 은밀한 움직임조차 놓치지 않으십니다.

진정 그녀에게 가까이 가십시오. 그곳에 우리 존재의 안전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비결, 생명이 거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 안에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429. 만일 그대가 우리 좋으신 어머니의 메아리라면, 태양이 사람들을 비추듯이, 비가 온 땅을 적시듯이 그대의 삶은 영혼들에게 기쁨이 되고, 모두에게 하느님의 미소가 되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430. 어머니의 이름을 몽땅 써버릴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이름은 닳지도, 마르지도,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원하는 만큼 마음껏 부르십시오.

431. 마리아의 품 안에서는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성모 어머니의 품에서는 가능해집니다.

432. 오직 성모님만이 불쌍하고 때문은 자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 주십니다. 오직 어머니만이 그를 팔에 안고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433. 갈라져 나간 형제들이 성모님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빨리 일치이 이루어 질까요!

어머니, 그들이 어머니의 따스함을 느끼게 하소서.

434.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어머니의 마음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자격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가난한 딸이 연약하고 불쌍할 수록 더욱 강하게 껴안아 주십니다. 가난함, 연약함... 그분 안에 더욱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자격증들입니다.

435. 어머니, 저로 하여금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을 떠나 살지 못하게 하소서. 제 영혼이 존재이신 하느님 안에 닳을 내리게 하시고 티끌 같은 저를 끝없이 무한하신 그분 안에 고정 시켜 주소서.

436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하신 어머니! 어머니의 힘 있는 전구로 저에게도 그 사랑을 얻어주시어 저의 삶이 당신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소서.

어머니의 모습을 빼어 닮은 하느님 아버지의 지극히 충실한 딸이 되어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영원한 나라에서 성인들과 함께 살게 해주소서.

437. 그대는 사랑의 학문에서 배울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마리아의 성심 안에서 집중적인 학습이 주어지니까요. 이처럼 훌륭한 사랑의 학교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438. 5월, 성모님의 사순절은 마음에 날개를 달고 높이 날아 오르기에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지체하지 마세요. 결코 지체해서는 안됩니다.

격렬한 싸움 중에 있을 때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힘은 죽음보다도 강합니다. 힘있고, 안전하고, 굳건합니다.

439. 어머니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녀의 발에서 밀알이 싹터 나왔습니다. 그 발에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예수님의 밀알로 배불리 먹여 주실 것입니다. 그대는 이제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될 것입니다.

440. 신비에 싸여계신 나자렛의 동정녀는 온 세상을 당신 품에 안고 계십니다. 그 무게를 함께 지고 가자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당신의 변민과 고통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구원의 신비의 무게를 느껴는 심오한 기쁨도 함께 나누길 바라십니다.

441.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으니, 먹고 마셔라..." 마리아에게서 양식을 취하십시오. 어머니는 그대에게 예수님을, 교회를 내어 줄 것입니다. 그대의 지성에는 빛나는 가르침을, 의지에는 힘있는 가르침을 줄 것입니다. 사막을 건너갈 수 있는 굳세고 용감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분 사랑의 증거자가 될 능력을 갖추게 해 줄 것입니다.

442. 그대는 지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심한 병을 앓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말이지요. 비록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을지라도 아이에게는 힘겨운 시간입니다. 그대는 가장 좋으신 어머니, 가장 성실한 벗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당신 품에 안겨 있는 당신의 작은 딸을 느끼고 알고 계십니다. 자신을 받아 들이십시오. 따님이여! 자신을 받아들이십시오.

비록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지라도 어머니의 그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대는 어머니의 것입니다.

443. 성모님을 더 많이 사랑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믿는다면 이미 힘찬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당신의 삶은 새로운 색조를 띠게 될 것입니다.

성모님을 섬세하고 진지하게 사랑하는 만큼 강인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44. 성모님께서 그대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교만을 보게 해 주시고, 그대의 교만을 당신의 겸손으로 대치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깊고 강한 심연으로 그녀를 이끌어간 그 겸손으로...

바로 그 겸손이 어머니를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르는 오벨리스크처럼, 거대한 피라미드처럼 그 꼭대기는 심연까지 닿아 있고 그 뿌리는 하느님 안에 닿아 있습니다.

445. 어머니 마음의 깊은 곳에 진실한 사랑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가장 좋은 어머니요 충실한 친구로, 형제요 자매로 침묵 속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한 마디로 그녀는 하느님처럼 사랑하십니다.

사랑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사랑에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그분 자신이 위대한 연인이십니다.

446. 만일 그대가 거룩하신 마리아의 사람이라면, 거룩하신 마리아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고, 자매들에게 봉사하고 기쁘게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447. 어머니... 나의 어머니, 왜 저는 이다지도 바보 같은지요? 왜 제 가난한 저를 위해 마련하신 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여 높이 날아오르지 않는지요...?

어머니, 제가 하느님의 반향인 어머니의 말씀을 온순하게 받아들여도 록 도와주시고 사랑의 정상에 오르도록 도와주소서.

448. 한 어린 유대 소녀의 품 속에 안겨 있는 베들레헴의 아기... 모든 것이 연약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 뜻의 신비는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유일한 힘이 있습니다.

449. 어머니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소서.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저를 만들어 주소서.

450. 사람들이 파티마에서 성모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랑의 요구 앞에 잠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새벽은 서광이요, 희망이며, 빛입니다.

그 새벽 빛 속에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새벽이 되기도 전에 밤이 온다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언제라도 온 세상을 축축히 적시는 이슬 방울을 맺어주는 새벽 빛이 되십시오.

451. 그분은 어머니시기에 어머니라 불러 마땅합니다. 그대도 진실한 딸이 되어 딸이라 불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십시오.

452.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는 말씀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늘 겸손과 비천함을 눈 여겨 보시고 겸손한 영혼들 안에서 강생하시고 살아가십니다. 그러기에 마리아 안에서 강생하셨습니다.

453. 마니피카티 우리 유배지의 어두움을 밝혀 주었습니다. 그대의 삶이 마니피카트를 노래하는 살아있는 마니피카티 되게 하십시오.

454. 성모님은 발전기이자 발전기를 돌리는 터빈이며 에너지입니다. 우리 사랑의 발전소의 총본부입니다.

마리아에게 달려가 그분 마음속에 숨겨진 비밀들을 훑쳐내십시오. 그분은 그대의 어머니이시니 당연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대에게 당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모두 가져다가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어머니의 것은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어머니께서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455. 마리아는 하느님과 가장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힘이요 하느님 신비의 투명한 광채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께서 그녀 안에 휴식을 취하십니다. 그녀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관조하시며 그 깊은 신비를 거울처럼 그녀 안에 반사시키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단순함이 절정에 이른 심오한 신비입니다. 너무도 단순하기에 복잡함이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리아를 바라보고 그대의 삶을 최대한으로 단순화하고 순수하고 투명하

고 편안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편안함을 모두에게 남겨 주십시오. 그리고 결국 오직 사랑만이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456. 역사 속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나자렛의 마리아입니다. 그분은 그대에게 하고 싶은 많은 얘기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편지요, 글이요 숨결이십니다. 이 위대한 분은 침묵 속에 다가 오시고 침묵 속에 사라지십니다.

457. 이 거룩하신 목녀께서 당신 사랑의 휘파람 소리로 그대 영혼의문을 단번에 영원토록 두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목녀의 지팡이가 그대를 인도하고 그 다정한 눈길로 그대를 이끌며 그 매혹적인 목소리로 그대를 사로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대 영혼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며 그대의 성소를 지켜주시는 어머니요 여왕이신 이 거룩한 목녀에게 반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대의 응답은 언제나 항상 "예"가 되어야 합니다.

458. 성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따뜻한지요! 그 안에서는 사랑과 불이 타오릅니다.

그리로 들어가십시오. 점점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따스함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대 마음이 뜨겁게 타오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459. 개인적인 충고지만 절대 어두움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항상 빛만 바라 보십시오. 성모님의 빛나는 눈동자에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460. 어느 날 오후, 지상에 새로운 노래가 들려 왔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의 구원자이신 하느님 안에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그 때부터 지상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대기는 새로운 색조를 띠기 시작하였고 온 세상이 더욱 기뻐 뛰놀았으며 하늘은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는 모든 마음과 목소리, 영혼을 사로잡는 성모님의 노래였습니다.

이 좋은 시간에 성모님과 함께 노래 부르십시오.

461. 어머니, 아드님의 요람 곁에서 밤을 지새우며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어머니께서 들으신 것, 그분의 말씀을 제게 들려 주십시오. 아니면 어둔 밤의 신비 속에 헤아리셔야 했던 그분의 침묵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머니, 제 영혼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한마디만 하소서. 언제나 영원토록 제 마음속에 간직하겠습니다.

462. 성모님, 당신 마음 안에 저의 헌신, 저의 봉헌, 저의 소망과 저의 야망을 맡겨 드립니다...

어머니의 마음 안에 저의 정화, 저의 성화, 저의 성소와 저의 사명을 맡겨 드립니다...

어머니, 당신의 마음에서 저의"예", 저의"아멘"과 "알렐루야"를 끌어내고 싶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성심으로 저를 하느님의 "예"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느님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시여, 당신의 것인 이

수도원을 오늘 다시 한번 기록하신 당신 모성애에 봉헌하며,
어머니의 충실한 딸인 저희 모두 영원토록 당신 것임을 또 다시 선포
합니다.

저희 모두의 삶, 저희 소망과 포부, 저희 마음, 평화 감도는 이 수도원
전체를 당신 것으로 받으시고 당신 그들로 감싸주소서.

저희 모두 교회의 충실한 딸, 당신 사랑에 충실한 딸들이라 불려지고
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